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5:5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부부극장 공작지(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채널A 아침뉴스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튠튼 생활채널	50 지구촌 뉴스		25 SBS 뉴스 40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11 50 이영돈·신동엽 전투맨(재)	00 한국의 밤(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일일 드라마 <천상여자>(재)	00 주말특별기획 <황금우지개>(재)	20 SBS 생활경제 1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 12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사랑해서 남주나>(재)	00 SBS 12뉴스 10 건강클리닉 30 피우자 민들레(재)
1 00 뉴스특보	00 강연 100℃(재)	35 힐링투어 야생의 발견(재)		
2 00 직언직설	00 KBS 파노라마 플러스(재) 10 시사기획 창(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디큐(재)	35 컬투의 배란다소 스페셜	00 SBS 뉴스 10 문화가중계(재)
3 00 뉴스특보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25 꼬아신선 타오(재) 55 TV유치원 공다공	00 MBC 경제 뉴스 10 라이선스 40 헬로 키즈 만들어볼까? 딱딱	10 SBS 이슈인 사이트
4 10 박종진의 뉴스쇼 캐드난마 1~2부	00 KBS 네트워크 특선 <비밀번호> 55 튠튼 생활채널(재)	25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5 위기탈출 넘버원(재)	30 똑! 똑! 퀴즈스쿨	00 꿈의 보석 프리즘 스톤 30 푸르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10 채널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시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불만제로 UP	05 전권 TOP10 가요쇼(재)
7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 드라마 <천상 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
8 30 관철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연예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배란다소	
10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리얼체결 세상을 품다	00 수목드라마 <감격시대>	0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코리아>	00 드라마스페셜 <별에서 온 그대>
11 00 미용실	30 KBS 뉴스라인	15 맘마미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짝
12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3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35 스포츠 하이리이트 50 2013 U-22 아시안컵 축구 <대한민국 vs 오만>	35 MBC 뉴스24	35 나이트라인

“비틀즈의 링고 스타 처럼 영화계 알찬 존재 될래요”

심은경, 복귀작 ‘수상한 그녀’ 서 젊은 할매로 변신

이제 갓 스무 살이지만 이 배우, 능수능란하다. 20대부터 70대까지의 정서를 감칠맛 나게 표현한다. 사투리부터 걸음걸이까지 꽤 자연스럽다. 사실 공포영화 ‘불신지옥’(2009)부터 그녀는 ‘필름부터 먹잇’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배우 심은경(20) 얘기다.

이제 막 청춘의 관문에 진입했지만, 연기 경력은 아역까지 포함해 10년이 넘는 중견급이다. ‘태왕사신기’(2007) 같은 굵직굵직한 드라마를 포함해 공포영화 ‘헌젤과 그레텔’(2007), ‘로맨틱 해븐’(2011), ‘싸니’(2011),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등 작품성을 인정받거나 빅히트한 영화들에 편식 없이 출연했다.

드라마와 영화를 아우르며 활발히 활동했던 심은경이 공백을 겪고 2년 만에 영화계로 복귀했다. 주연한 영화 ‘수상한 그녀’를 들고서다.

“빨리 작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여기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연기를 통해 얼마나 행복함을 느꼈는지 미국에 있으면서 알게 됐어요. 연기를 하면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죠.”

심은경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이렇게 말하며 해맑게 웃었다. ‘수상한 그녀’는 시간 여행을 통해 젊은 시절로 돌아가 가수의 꿈을 이루는 오발순 여사의 이야기를 다룬 이른바 ‘타임슬립’ 영화다. 심은경은 홀몸으로 외와아들을 키우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 젊은 충각과 풋사랑에 빠지는 말순 역을 맡았다.

“촬영 전부터 작전을 치밀하게 세워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허술하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연기를 참고했어요. 말투, 행동, 걸음걸이, 추임새까지 모두요.”

“수상한 그녀”에 출연하기까지 약간의 망설임도 없지 않았다. 노인역을 연기했던 ‘로맨틱 해븐’으로 대중상 여우조연상까지 받았는데 또다시 비슷한 연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스며들면서다.

“전혀 다른 영화지만, 열려스런 부분은 있었

어요. 제가 잘못하면 영화 자체를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유학 생활 중에 제의를 받았는데, 저는 주연보다는 조연에 끌렸거든요. 부담이 컸지만, 시나리오를 읽고 ‘수상한 그녀’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화는 그야말로 심은경의 일백송이다. 강원도 강릉 출신이지만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며 젊은 청춘들의 마음을 훔쳐보기도 하고, 노래도 다양한 창법을 섞어 마음껏 내지른다.

“가창력보다는 감성에 신경 썼어요.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말이죠. 보컬훈련을 받다 보니 맛깔 나게 소리 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일단 제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대역 가수를 찾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가창력보다는 진심이 들어가는 게 (캐릭터 형성에)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제 능력이 모자라면 연습할 테니 직접 노래 부르겠다고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심은경은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자 지난 2011년 미국행 정도에 올랐다. 피츠버그 빈센트 아카데미와 스크린 액터즈 스쿨에 입학했다. 뉴욕프로페셔널필름스쿨에 다녔다. 유학 중 잠시 시간을 내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을 찍었지만, 대부분 시간은 미국에서 보냈다.

“뉴욕은 예술의 도시입니다. 미술, 클래식 공연 등 이런저런 공연을 자주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배우가 되기 위한 기초 공부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비틀즈 멤버 중에 링고 스타를 좋아한다고 한다. 링고 스타 없는 비틀즈를 생각할 수 없듯, 그녀도 영화계에서 그런 ‘알찬’ 존재가 되고 싶단다.

“주인공만 말고 싶진 않아요. 좋은 영화라면 조연이라도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돋보인다기보다는 영화 전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심은경)

EBS

06:10 세계의 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최진훈의 맛 보장! 배고고 쉬운 리시피·대구탕과 흔득 감자 조림)	15:15 꼬마 기사 마이크 15:30 비두와 친구들 15:45 푸바푸바 눈보리 16:00 덩동 덩 유지원(재) 16:20 아기 고릴라 동동 16:30 코코몽2 16:45 오아모아재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17:15 꼬마버스 타요 17:3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7:45 로보카 폴리 18:00 한국전쟁 18:05 시사재널 18:10 겨울방학생활 2학년 18:30 겨울방학생활 4학년 18:50 겨울방학생활 6학년 19:00 부모 19:20 유아학습의 모든 것 2 10:00 한국기행 10:20 영의의 건강비결	19:30 두기 탐험대 20:00 EBS 뉴스 20:20 다문화 사랑 20:30 세계대마법 <종교로 호수의 땅, 동아프리카 3부 - 소금 호수의 비밀> 21:30 한국전쟁 <무진장 전투 - 구름위의 땅 고원길을 걷다> 21:50 EBS 디큐프리엄(학교의 발견) 22:45 극한직업 22:45 세계의 눈(특선) 24:05 지식재널(재) 24:10 한국 영화 특선 <간첩 리철진>
-------------	---	---	---

EBS플러스1

00:00 고교특강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2> <Basic Grammar>	10:50 2014 수능개념 <영어 독해>(재) 11:40 2014 고등 대비과정 <국어>(재)
01:40 수능 길잡이 <독서>	13:00 <수학 1>(재) 14:00 <영어>(재)
02:30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 1>	15:00 수능길잡이 <영어독해 구문판>(재) 16:00 2014 수능개념 <수학 1 A형>(재) (기하와 벡터)(재)
03:20 <영어 독해 구문판> <영어 독해 유형편>	17:00 <수학 1 A형>(재) (기하와 벡터)(재)
05:50 <영어 독해 유형편>	19:00 <독서>(재) <문학>(재)
06:40 고교특강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2> <Basic Grammar>	20:00 <미적분과 통계기본>(재) 21:00 <수학 1>(재) <수학 1>
08:20 2014 고등 대비과정 <국어>	22:00 2014 수능개념 <영어 독해 유형편>(재) 23:00 수능길잡이 <영어독해 유형편>(재)

EBS플러스2

07:00 상상과 창조 인문학 이야기 07:50 수학의 원리 마테미카 08:00 9급 공문서 시험 대비 강좌 08:30 검증된 시강 09:00 출제문 수학 EBSMATH 09:10 중학 예비과정 <국어>(재) 09:50 <수학 1> 10:30 <영어> 11:10 중학 1학년 <영어> 11:50 중학 예비과정 <국어>(재) 12:30 <영어> 13:10 <수학 2> 13:50 중학 개념 풀장내기 <세계사> 14:30 <한문> 15:10 스포츠랜드	15:20 초등 2년 EBS 겨울방학생활 15:40 초등 4년 EBS 겨울방학생활 16:10 초등 6년 EBS 겨울방학생활 16:20 초등 개념 잡기 <사회> 16:50 한지교육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영어>(재) 17:20 중학예비과정 <영어>(재) 18:00 성공 인생 후반전 <영어> 18:30 한 그릇 특목 <영어> 18:40 원더풀 씨어터스(5)(6) <수학 2> 20:20 상상과 창조 인문학 이야기(재) <수학 2> 21:10 스포츠랜드 <사회> 22:00 <수학 2> 22:40 <영어> 23:20 <국어>
--	--

tvN ‘더 지니어스2’ 막장 논란

“승리 위해 절도까지” 시청자 분노… 폐지 청원도

케이블 채널 tvN의 게임 리얼리티쇼 ‘더 지니어스2: 블블레이커’에 쏟아지는 시청자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1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 진행된 ‘더 지니어스2’ 폐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무려 8900여 명이 참여했다.

드라마가 비윤리적 전개로 ‘막장’ 논란을 빚거나 출연자가 방송 외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니며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벌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다.

발어는 “인맥 관리로 승부가 갈리고 승리를 위해 절도까지 한다”며 “법규와 질서를 어겨서라도 개인의 성공이 우선이라는 물질만능주의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계시관에도 이날 하루만 1500여 개의 글이 올라 시청자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대부분은 일부 출연진과 제작진을 비난하거나 중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더

지니어스2’는 방송인, 해커, 변호사, 마술사,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출연자들이 1억원의 상금을 놓고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 심리 게임을 벌이는 리얼리티 쇼다.

앞선 방송에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 참가자들이 합심해 다른 분야 참가자들을 탈락시키면서 불만이 누적되다가 최근 일부 출연진이 다른 출연진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게임 참여 수단 자체를 훔쳐 승부에서 배제하면서 분노가 절정에 치달았다.

일각에서는 이는 프로그램 시청자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거나 논란 자체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논란이 거세지면서 시청률도 올라 최근 방송은 2%에 육박한다.

(심은경)

知天命이 모든 오늘의 운세

1월 15일(음 12월 15일 丙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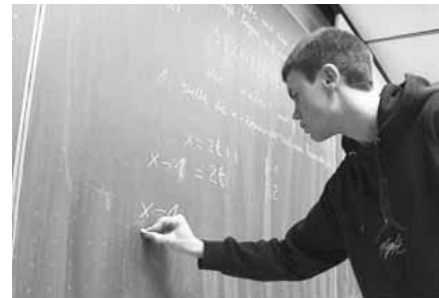
子	36년생 호기를 발견한다. 48년생 사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60년생 단순한 비교는 상상감만 더 할 뿐이다. 72년생 마음의 문을 열자. 84년생 신뢰도와 공유 정도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87, 14
丑	37년생 두고두고 애물이 되리라. 49년생 은혜를 입게 된다. 61년생 합리적인 조절이 좋은 선택으로 이어진다. 73년생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삼가야 손실을 막을 수 있다. 85년생 의외의 행운이 들어올 수다. 행운의 숫자 : 33, 62
寅	38년생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 와 있다. 50년생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 62년생 골라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74년생 효율성을 펴면서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이는 양태이다. 행운의 숫자 : 06, 43
卯	39년생 문제가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도 함께 보인다. 51년생 의도가 좋더라도 때와 장소를 잘 가리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63년생 드러나서 속 시원하겠다. 75년생 술은 끝 때 걸러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7, 24
辰	40년생 막연한 집착은 행복지수를 하락시킨다. 52년생 실질적이라면 매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64년생 주기적인 리듬을 타면서 반복되리라. 76년생 행로에 아무런 장애도 없으니 속도를 내어도 되겠다. 행운의 숫자 : 52, 90
巳	41년생 객관적 실재성이 약해서 허상에 가깝다. 53년생 하찮다고 여긴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65년생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는 모습이다. 77년생 행동에 제약이 받게 되는 요인이 발생 하리라. 행운의 숫자 : 59, 08

午	42년생 중대사를 망각할 수 있다. 54년생 염려될 만한 화근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리라. 66년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8년생 과욕은 퇴보의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주인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1, 17
未	43년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55년생 일시적인 감정에 따르면 오판의 소지가 크다. 67년생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다. 79년생 망설이지 말고 자신이 먼저 양보한다면 덕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83
申	44년생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하느니라. 56년생 어설픈게 방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될 것이다. 68년생 희망을 여는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나, 80년생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2, 68
酉	45년생 조짐이 보인다면 초기에 수습해야만 뒤끝이 없다. 57년생 서둘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69년생 상대는 이미 자세한 사정을 다 알고 있으니, 81년생 비웃을 때 비로소 재울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7, 37
戌	46년생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모여든 이들로 가득 차 있다. 58년생 단순해 보일지라도 실제 내막은 복잡하겠다. 70년생 준비해 둔다면 큰 힘이 되리라. 82년생 걱정할 바가 아니니 앞만 보고 나가도 된다. 행운의 숫자 : 55, 11
亥	47년생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얻게 되리라. 59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71년생 가변적임을 감안하고 대처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83년생 호령을 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3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개혁에 나선 세계의 학교



다큐 프리엄(EBS·밤 9시50분)은 인재전쟁이라 이름붙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학교개혁에 나선 세계각국의 현장과 목소리를 생생하게 소개한다.

전통적인 학교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로 융합인재를 키워내는 독일, 아이의 가능성을 최대한까지 키워내는 핀란드, 이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서울의 한 학교의 모습은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진다.

세르게이 변화하는 세계 경제체제와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학교와 새로운 인재가 필요할 것인지 의미 있는 질문과 답을 찾아보려 한다.

학교의 발전은 흥미로운 영상기법과 스토리텔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종합무진 오가며 질문을 던지는 다큐멘터리다.

리키김, 지옥의 오프로드 도전



리얼체결 세상을 품다(KBS1·밤 10시50분)는 배우 ‘리키김’이 말레이시아에서 펼쳐지는 오프로드 대장정인 RFD(Rain Forest Challenge)에 참가해 2,500km의 정글을 누비며 드라이버로 활약했다. 정글릴리(RFD)는 전 세계 오프로드 마니아들의 실력을 겨루는 최고의 이벤트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4천 대의 중 하나를 자랑했다.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에 정글 속 험난한 트랙을 누비는 스티어링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각종 장비로 무장하지만 참가자들의 절반 이상이 탈락하고, 대부분이 거의 패자 직전인 정도로 혹독해서 일명 지옥의 사투라고 불리는 대장정, 말레이시아 정글릴리(RFC). 이제부터 리키김의 한계를 초월할 도전이 시작된다.

두 자매의 서로 다른 꿈



내 마음의 크레파스(SBS·오후 5시35분)는 광주시 우산동에 살고 있는 진은이(13)의 집에서는 오늘도 흥겨운 판소리 가락이 흐릅니다. 바로 동생 송은이(9)의 목소리.

언니 진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판소리 열매를 대신해 송은이를 위해 복도 쳐주고, 한복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챙기는 진은이. 송은이 매니저이자 코디 역할을 한다.

사실 진은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그건 바로 피아노. 하지만, 그런 진은이의 속도 모르고 복을 쳐달라고 때리는 동생 송은이와 동생 옆에서 부치는 고수가 되면 어떨겠냐고 묻는 엄마. 이제는 들려오는 모든 말들이 섭섭하게만 느껴진다.